

2) Group I은 10명, II는 24명, III는 22명이었으며 각 Group 사이에 연령의 차이는 없었고, 성비는 Group II와 III가 3.8:1, 4.5:1이었고 Group I은 1:1.5로 여자에 많았다.

3) 痲素血症의 빈도는 Group간에 무관하였고 GPT 値의 상승과 血小板數의 감소는 Group III에서 빈번하였으며 cholesterol 値의 상승은 Group I에 많았다.

4) 血尿는 Group III가 54.5%로 많았으며 3.5g/日 이상의 蛋白尿는 Group I이 70%, II가 52.1%였고 III는 33.3%였다.

5) 免疫血清學的 檢査에서는 RA 因子的 양성율이 Group I 0%, II 8.3%, III 33.3%였고 cryoglobulin 은 B표식자에 무관하였으며, 血清補體 値의 감소는 Group III에서 현저하였다.

6) 組織病理所見에서는 Group I의 4명, II 6명, III의 15명이 stage III~IV였으며 특히 Group III에서는 mesangium 細胞의 증식, subendothelial deposit, segmental change, 腎細尿管과 interstitium의 변화가 다른 Group에 비해 빈번하게 관찰되었다.

7) 免疫螢光檢査狀에는 IgM이 Group III의 60%에서 capillary(53.3%)와 mesangium(6.7%)에 침착되어 Group I의 14.3%, II의 14.2%에 비하여 증가되어 있었다. B表面抗原에 대한 直接 免疫螢光檢査는 Group I과 II의 4명에서 실시하였으나 음성이었으며, III에서는 4명 중 2명이 양성이었다.

이상에서 膜性病變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B型 肝炎바이러스의 感染양상과 비교해 본 결과, B表面抗原이 양성인 환자들은 血尿와 RA因子的 양성율이 높았으며, 病理學的으로는 mesangium의 變化, subendothelial deposit, segmental change 등이 관찰되었으며, IgM의 침착율이 높았고, 이들 중 2명에서는 絲絨體에서 直接免疫螢光法으로 B表面抗原을 증명할 수 있었다.

— 13 —

IgM 침적을 보인 絲絨體腎炎 1例

高麗醫大 內科

南宮鎮三 · 金亨奎 · 洪淳國

서울醫大 病理學

李 賢 順

1968年 Berger가 반복적인 혈뇨와 단백뇨가 있는 경우 腎生檢檢査에서 免疫螢光染色所見狀 mesangium에 IgA의 침적이 현저한 경우를 보고한 이래, 면역형광염색법은 신생검 검사에서 필수적인 검사로 알려져 있다.

特設性 腎症候群 患者에서 신생검 검사는 임상경과, 檢査室所見과 함께 환자의 豫後를 결정하거나 치료방침을 정하는데 중요한 검사로서 近者에 들어 진신적 질환이 동반되지 않은 특발성 신증후군환자의 신생검 검사상 基底膜의 변화없이 輕度의 mesangium의 증식과 함께 면역형광염색상 IgM의 현저한 침적을 보이는 경우를 IgM 사구체신염으로 分離하여 연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演者들은 입원 4일 전부터 심한 全身浮腫을 보였던 23세의 남자로서 혈청단백 3.4 gm(albumin 35.4%), 혈청 cholesterol 398 mg/dl, 24시간 총노단백 22 gm, 혈청 IgM 213 mg/dl, IgG 590 mg/dl, IgA 208 mg/dl, IgD 110mg/dl, IgE 990u/ml, C, 62mg/dl, C₃ 39mg/dl이었으며, 신생검소견상 mesangium에 현저한 IgM의 침적과 경도의 C₃ 침적을 보였으며 電子顯微鏡狀 mesangium에 electron dense deposit가 있고 경도의 분절성 기질증식을 보였던 例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14 —

慢性肝炎患者에서 單核性 IgM, Kappa型 및 多核性 混合寒性冷球蛋白血症을 나타낸 1例 報告

서울醫大 內科

李勳謙 · 金聖禧 · 李正相 · 李文鎭

서울醫大 病理學

車榮珠 · 朴明姬 · 金萬一

1933년 Wintrobe 등에 의하여 저온에 노출된 가역성 변화를 일으키는 혈장단백질의 응고현상이 보고 되었으며, 1947년 Lerner 등에 의하여 이 단백질을 cryoglobulin이라 명명된 이래 여러 질환에서 cryoimmunoglobulin이 많이 보고되어 왔다.

1966년 Meltzer 등이 다른 원인질환이 없이 자반증, 관절염, 진신쇠약, 신장염을 일으키고 이들에게서 IgM 및 IgG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를 essential mixed

cryoglobulinemia(이하 EMC라略稱)라고 보고하였고, 이들 EMC에서 HBV 표식자를 측정하여서 HBV의 관련성 여부를 밝히야 한다고 생각되어 왔으며, 1977년 Levo 등은 이러한 경우가 74%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演者 등은 HBV 표식자 양성인 환자에서 monoclonal IgM(k) component를 同伴한 mixed cryoglobulinemia 및 膜增殖性絲絨體腎炎의 병리소견을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52세 여자로서 단백뇨를 主訴로 來院하였으며 임상적으로 慢性肝疾患을 보이다가 腹水 및 深한 cryoglobulinemia로 발견하였는데 이 환자의 검사소견은 Hb 8 g%, WBC 5,100, Platelet 25만, Albuminuria (H), RBC 40~50/HPF in urine, SGOT/SGPT 186/125, Prot./Alb. 6.2/3.9, BUN/Cr 39.6/1.4, CCr 35.3 ml/min, Cryoimmunoglobulin(+), Cryocrit 24, VDRL(-), RA titer 1:5120, 血清補體值 C₃/C₄/CH₅₀ 42/4.7/76 미만, HBsAg/eAg/sAb/cAb+/-/-/+, cryoprecipitate의 HBsAg(+) RA factor(+), 면역단백질 IgG/A/M 640/93/860, 혈청의 단백 및 면역단백 전기영동에서 M-peak를 보인 monoclonal type의 IgM, Kappa polyclonal 및 mixed IgM-IgG component 帶의 증가를 보였으며, 腎組織病理檢査狀 mesangial matrix의 확장 및 세포수의 증식, 基底膜의 double contour, mesangium 및 subendothelium에 electron dense deposit 등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이 환자는 HBV에 의한 만성 간질 환 및 막증식성 신사구체신염에 의한 임상적 소견을 보인 monoclonal IgM, kappa type 및 polyclonal mixed cryoglobulinemia로 판명되었다.

— 15 —

미세병변 신증후군에서 백혈구 유주억제 반응과 림프구 아세포 형성에 대한 혈청 억제인자의 영향

가톨릭의대 내과

안병민·김호연·방병기·민병석

본 연구는 미세병변신증후군 minimal change nephrotic syndrome에서 세포성 면역기능의 이상, 특히 지

연성 과민반응 및 림프구 아세포 형성능과 혈청 억제 인자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환자 18예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검사를 하였다. PPD를 항원으로 in vivo 피내반응(Mantoux test)과 in vitro 백혈구 유주억제 검사(leukocyte migration inhibition test)를 활용기 및 비활동기에 조사하였고, PHA-P에 대한 림프구의 반응과 혈청 억제인자가 림프구 아세포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1. 신증후군 환자의 Mantoux 검사는 활동기 15예 중 12예(80%)에서, 비활동기 15예 중 4예(26.7%)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2. 백혈구 유주억제 검사는 추적 조사하였던 11예 중 8예에서 활동기에 양성 반응이던 것이 비활동기에 양성 반응으로 전환되었다.

3. 신증후군 환자의 단핵구 세포를 PHA-P로 자극 후 그 상층액 내의 백혈구 유주억제 인자(leukocyte inhibitory factor)의 반응을 정상인 다형핵 백혈구를 지시세포로 하여 간접 백혈구 유주억제 검사를 하였던 바 활동기에서는 양성 반응(평균 migration index 1.01)을, 비활동기에는 양성 반응(평균 migration index 0.73)을 보였다.

4. 신증후군 활동기 및 비활동기 환자에서 분리한 단핵구의 PHA-P 자극 ³H-thymidine 섭취율(incorporation)은 활동기에 감소되었다가 비활동기에 증가되어 매우 유의한 차를 보였다(각각 stimulation index 4.01±0.82, 23.29±7.58, p<0.01).

5. 신증후군 활동기 환자의 단핵구 세포를 정상인 혈청으로 전처리한 후 PHA-P 자극 ³H-thymidine 섭취율은 자기 혈청 전처리 후보다 현저히 증가하였다(각각 stimulation index 4.21±2.31, 43.42±4.92 p<0.01).

6. 정상인의 단핵구 세포의 PHA-P 자극 ³H-thymidine 섭취율은 자기혈청 전처리 후 유의하게 낮았고(각각 stimulation index 30.82±8.15, 4.35±3.18, p<0.01) 비활동기 환자혈청으로 전처리 후에는 차이를 볼 수 없었다(stimulation index 23.59±7.69). 이러한 활동기 환자 혈청 억제효과는 56°C에서 30분 처리해도 남아 있었다.

이상의 성적으로 신증후군의 활동기에는 면역 조절 기구 세포의 이상으로 어떤 혈청 억제 인자가 일시적으로 출현하여 in vitro에서 mitogen에 의한 림프구 아세포 형성과 백혈구 유주억제 인자의 형성을 억제시키며 in vivo에서 지연성 과민반응을 억제 시킨다고 생각된다.